

- 주요 뉴스: 미국 12월 근원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세 둔화. 인플레이션 우려도 완화
 - 연준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은 목표를 향해 전진. 경제 활동은 완만하게 증가
 - 국제에너지기구(IEA), 금년 석유시장의 공급과잉 규모는 예상보다 축소될 전망
 - 일본은행 총재,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인상 여부 논의 예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국채금리 급락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국채금리 급락, 양호한 은행 실적 등으로 큰 폭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의 물가 상승세 둔화, 소매주 강세 등으로 1.3%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다소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하락
유로화 가치는 0.2% 하락, 엔화 가치는 1.0%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2월 근원 소비자물가의 상승세 둔화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9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54.3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56.1원, 0.10% 상승). 한국 CDS 하락

		1/15일	1/14일	전일대비			1/15일	1/1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949.9	5,842.9	+1.83%	국채 금리 10y	미국	4.65%	4.79%	-14bp
	유럽	515.02	508.28	+1.33%		독일	2.56%	2.65%	-9bp
	중국	3,227.1	3,240.9	-0.43%		영국	4.73%	4.89%	-16bp
	일본	38,445	38,474	-0.08%	CDS 5y	한국	39bp	40bp	-1bp
	한국	2,496.8	2,497.4	-0.02%		중국	56bp	59bp	-3bp
환율	달러지수	109.10	109.27	-0.16%	위험 지표	EMBI+	-	361	-
	유로화	1.0289	1.0308	-0.18%		VIX	16.12	18.71	-13.84%
	엔화	156.47	157.96	+0.95%	원자재	WTI유	80.04	77.50	+3.28%
	위안화	7.3319	7.3311	-0.01%		구리	438.9	434.3	+1.07%
	원화	1,454.7	1,462.0	+0.50%		금	2,696.3	2,677.5	+0.7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2월 근원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세 둔화. 인플레이션 우려도 완화

- 작년 12월 소비자물가(CPI) 월간 상승률(0.4%)은 전월(0.3%) 및 예상치(0.3%) 대비 높은 수준이었고, 연간 상승률(2.9%)은 전월(2.7%) 대비 상승하며 예상치(2.9%) 부합. 근원 CPI의 월간 상승률(0.2%)은 전월(0.3%) 대비 둔화되며 예상치(0.2%)와 동일. 연간 상승률(3.2%)은 전월(3.3%) 및 예상치(3.3%) 모두 하회
- 세부항목 가운데 식품(0.4%→0.3%), 중고차(2.0%→1.2%), 의료 서비스(0.4%→0.2%) 부문의 전월비 상승 둔화가 이번 결과에 기여. 전체 물가에서 비중이 높은 주거비(0.3%→0.3%) 부문은 보합.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부문(0.2%)이 5개월래 최저를 기록한 것도 고무적. 에너지 부문(0.2%→2.6%)은 큰 폭 상승
- 기저 인플레이션 판단에 보다 효과적인 지표로 인식되는 근원 CPI의 상승세 둔화는 최근 불거졌던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를 완화시켰으며, 이에 국채금리가 급락(10Y, 4.65% -14bp)하고, 주가는 큰 폭 상승(S&P500: 5949.9 +1.83%). 일부에서는 다음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6월→3월)는 의견도 제기
- 이번 결과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최근 생산자물가(PPI) 동향을 고려한다면,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PCE 물가도 향후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궤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Bloomberg Economics). 한편 CME의 FedWatch는 금년 1회(6월, 0.25%p)의 금리인하를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은 목표를 향해 전진. 경제 활동은 완만하게 증가

- 뉴욕 연준의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연율 2%)에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 시카고 연준의 굴스비 총재도 인플레이션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향후 경기 연착륙을 낙관하고 있다고 발언
- 리치몬드 연준의 바킨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 다만 금리는 당분간 제약적인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베이지북에 따르면, 고용이 늘어나는 등 경제 활동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 또한 기업들도 금년 경제 여건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시각을 피력

■ JP Morgan 등 미국 주요 은행, 작년 4/4분기 실적은 양호. 트레이딩 부문이 호조

- JP Morgan의 작년 4/4분기 매출과 주당순이익은 모두 예상치를 상회(각각 417억달러→438억달러, 4.11달러→4.81달러)했고, Goldman Sachs의 매출과 주당순이익도 모두 예상치 대비 높은 수준(각각 124억달러→139억달러, 8.2달러→12.0달러). 특히 주식 및 채권 트레이딩 사업에서의 이익이 큰 폭 증가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교환 합의. 1/19일부터 발효

-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에 합의. 또한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도 이스라엘과 교환에 나설 방침. 한편, 이번 협의에 참여하고 있는 카타르의 외무부는 1/19일부터 이번 합의가 발효된다고 발표

■ ECB 부총재, 금리인하 지속할 가능성. 만일의 위험에는 신중하게 대응

- 권도스 부총재는 예상대로 인플레이션 완화가 이어질 경우 계속해서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발언. 다만 부채 혹은 무역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첨언. 한편,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임금상승 둔화를 고려할 경우 인플레이션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 국제에너지기구(IEA), 금년 석유시장의 공급과잉 규모는 예상보다 축소될 전망

- 금년 공급과잉 규모를 일일 72.5만배럴로 제시했고, 이는 이전(일일 95만배럴) 대비 낮은 수준. 미국 및 캐나다의 강한 추위가 수요를 늘리고 있다고 평가. 아울러 미국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공급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

■ 일본은행 총재,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인상 여부 논의 예상

- 우에다 총재는 다음 주 예정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인상 여부를 논의할 것이며, 경제 성장 개선이 지속되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발언. 이와 관련하여 임금동향과 미국 트럼프 차기 정부의 정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6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2월 소매판매 및 수입물가, 1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독일 및 이탈리아 12월 소비자물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주요 동향 및 해외시각

■ [주요 동향] 트럼프, 아브라함 협정 확대 추진. 차기 국무장관 후보는 對中 강경책 주장

- **트럼프, 아브라함 협정 확대 추진**: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자신의 대선 승리 효과로 평가. 또한 1기 행정부 시절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아랍국가 간 관계정상화)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 중동 특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및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가자지구가 테러리스트의 안전지대가 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천명
- **차기 국무장관 후보, 對中 강경책 강조**: 루비오 지명자는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10년 내 미국인의 일상생활이 중국 의존도 심화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 이에 국내 산업 기반 확충과 대만 침공 억제를 위한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 한편 루비오 지명자의 상원 인준은 초당적 지지로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
-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親안호호폐 정책 추진 예상**: 소식통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피어스 및 우예다 SEC 위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親안호호폐 정책 전환을 주도할 전망. 이는 겐슬러 前 SEC 의장의 강경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
- **美 재무장관, 트럼프 감세 계획의 잠재적 위험 지적**: 옐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계획이 금융시장 혼란과 재정전망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또한 이는 미국 국채시장의 복원력과 달러화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 **주요 투자은행, 트럼프 정책에 기대 표명**: 주요 은행 CEO들은 트럼프의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이 은행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해외시각] 가자지구 휴전, 트럼프의 압박이 주효. 세계 각국은 트럼프 관세 대응책 모색

- **가자지구 휴전, 트럼프의 명확한 압박이 주효**: 가자지구 휴전 합의에는 트럼프의 '당장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명확한 요구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내각을 설득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휴전에 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직면했기 때문(Bloomberg)
- **세계 각국, 트럼프 관세 대응책 모색**: 트럼프 2기 무역정책이 1기보다 더욱 강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국은 다양한 대응 전략을 준비. 멕시코-캐나다의 보복 관세를, 베트남-한국대만은 미국산 수입 확대를 약속. 한편 EU는 보복관세 대상 미국 제품 목록을 작성하고, 통상위협 대응 조치를 도입(Bloomberg)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주요국 중앙은행, 채권시장 혼란 가중되면 대차대조표 조정에 나설 가능성 - Reuters

(Restive bonds still have a balance sheet backstop)

- 미국 등 일부 주요국은 채권금리의 지속적 상승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및 경제에 대한 여파를 우려. 그러나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해 대차대조표 조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 일례로 '22년 말 영란은행과 '23년 3월 연준은 국채시장 및 지역은행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일시적 시장 개입을 단행. 아울러, 연준과 여타 중앙은행들은 그 동안 양적긴축을 지속했기에 현재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양적완화 여력을 확보. 이에 중앙은행은 필요할 경우 향후 투자심리에 잠재적 완충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중소형 은행, 대형 은행과 달리 대출 둔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소지 - WSJ

(A Good Year for Wall Street Isn't the Same Thing as a Good Year for Banking)

- 주요 대형 은행(JPMorgan, Goldman Sachs 등)의 4/4분기 양호한 실적 발표로 은행업에 대한 투자자 기대가 확산. 특히, '25년에는 M&A 및 금융시장에서의 트레이딩 증가, 기타 활동의 활발한 전개 등이 예상(JPMorgan)
- 하지만, 금리인하 기대 후퇴, 트럼프 관세로 인한 기업 투자계획 위축, 신용카드 대출 둔화, 인플레이션 우려 등은 대출감소를 초래하여 은행의 순이익 마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 및 특수 은행을 포함한 중소형 은행들은 금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 가능성

■ 트럼프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실물 경제 및 금융시장을 위협 - 블룸버그

(Trump's disruptive politics threaten the economy)

- 트럼프의 무역 및 감세 공약에 따른 실제 결과와 상관없이, 최악의 경우 투자자의 신뢰 상실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일례로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효율성 저하와 소비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 일부에서는 금융 불안 가능성을 더 큰 위협으로 지목. 최근 트럼프 경제팀이 관세를 특정 품목에만 부과할 수 있다는 보도 이후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냈으나, 트럼프가 이를 부인하자 강세로 돌아서는 등 환율 변동성이 확대. 또한 장기금리 급등은 정책 불안을 반영. 이에 연준은 불확실성 속 물가안정과 경기 방어라는 과제에 직면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